

광주상의 “법원 직무정지 결정 수용”

마형렬 회장 등 26명 상공의원 총사퇴·조기 재선거 제안 금호측 “불합리한 선거규정 개정 우선... 불법선거 책임져야”

금호종금 등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광주상의 마형렬 회장 외 25명의 상공의원 일동’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경계하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과 지역경제계는 “과편화된 광주상의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광주상의의 위상을 정립하고 광주발전을 위한 주체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공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대 상공의원 선거로 인해 회원기업과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광주상의가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공의원에 당선된 42명 전원의 총사퇴와 함께 본안판결 이전에 조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광주상의가 회원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책임있는 경제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금호측은 “현 회장측이 진정으로 광주상의의 발전을 원한다면 정관 개정과 함께 재선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뒤 새로운 정관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측은 “이번 성명은 불·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조기 재선거보다 불합리한 선거규정의 개정과 개혁적인 선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상의가 제대로 서려면 우선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 독소조항을 없애고 ▲교합식 회장 선거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광주상의가 비판을 받아온 것은 ‘감투싸움’보다 상의가 광주경제를 위해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라며 “광주상의가 경제인들의 친목단체를 넘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공의원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촛각을 닦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일부 업종이 상의를 좌우할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별로 상공의원을 분배하고, 의원수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법원판결 결과 광주상의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마형렬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광주상의는 본안소송인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직무정지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마저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은 본안 소송 판결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선관위원회를 구성,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금호측은 지난 3월 27일 ‘광주상의 제 19대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회장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중소제조업 경기 회복세 3월 생산지수 118.5...13개월째 상승

3월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지수가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는 3일 “3월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가 118.5로 작년 동기대비 1.2%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의미한다.

이 연구소가 자체 집계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표본대상 중소기업의 생산량에 업종별 가중치를 반영해 수치화한 것으로 2000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잡는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9% 오른 이후 8월 2.1%, 9월 1.6%, 10월 1.7%, 11월 2.2%, 12월 2.6%, 올해 1월 0.7%, 2월 4.0% 올랐다.

중소기업 제조업지수는 지난해 7월 110.0, 8월 107.1, 9월 107.2, 10월 113.4, 11월 113.5, 12월 112.9, 올해 1월 104.1, 2월엔 104.0을 기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통상적으로 전월 대비보다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는 전년 동기대비 수치를 의미 있게 본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종업원수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가운데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감안해 선정한 2천 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산출한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가산단 가동률 1.8%p 상승

국가산업단지의 3월 가동률이 3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3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공장 가동률은 85.8%로 전월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져 올해들어 1.2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기업규모별 가동률은 대기업(300인 이상)은 86.9%, 중기업(50~299인)은 86.4%, 소기업(50인 미만)은 74.5%로 조사돼 규모가 작을수록 가동률이 낮았다. 대기업은 전체 가동률의 1.3%에 불과하지만 총 생산실적의 73.3%를 차지한 반면 가동률의 85.6%에 이르는 소기업의 생산실적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3월 생산액은 25조7천585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9.1%, 작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이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석유화학업종의 생산이 10.7% 증가하고 운송장비(12.6%), 기계(11.7%) 등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113억4천만달러로 전월보다 4.6%, 작년 동월보다 10.4% 늘어났다.

연환뉴스



신기한 아이스크림 나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식품위해요소 관리) 모범업체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일 충남 천안시 롯데삼강 천안공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포장과정을 살펴보는 재미있어 하고 있다. /연환뉴스

“당국 여력 떨어져 920원대 가능성 기업들 스스로 환위험 대비해야”

■ 환율 940선 재봉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930원대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특별한 마지노선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환율이 상반기내 92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당국의 개입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율 940원선 재봉고, 8년반만에 최저=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즉시 940원을 밑돈 뒤 손절매도로 934.30원까지 떨어진 채 마감했다. 환율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97년 10월 24일 929.50원 이후 8년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최근 환율 하락세는 국내외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중국과 유로권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자 고금리 통화로서 달러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7개국(G7)의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질상 압력도 지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날 환율의 930원대 진입은 최근 공격적인 개입을 통해 환율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던 외환당국이 방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주 20억달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달러매수 개입에 이어 전일도 개입에 나서며 940원선을 지켜낸 것이다.

◇전문가 “당국 마지노선 없어, 기업 스스로 대비해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속도 조절을 통해 환율 급락세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거나 장기간 일정 수준을

지키는 개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595억달러로 급증하며 2천200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 시장 흐름을 무시한 개입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주 대규모 개입 역시 환율이 한달만에 970원선에서 930원대로 직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920원대로 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900원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B선물 오정석 투자전략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92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며 “당국 개입 여력이 많이 떨어진 데다 증시에서 외국인도 주식 매수세로 돌아선 상태라 특정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환뉴스

“이란 사태 악화면 유가 100달러 갈수도”

삼성경제연구소

핵 개발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국제 유가는 미국 서부텍사스중립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일 “유가급등 언제까지 지속될까” 보고서에서 “미국이 핵 문제로 이란을 공격하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란이 보복성 석유 감산에 들어갈 경우, 또는 양국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단기적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유가 상승 압력은 고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반기에 WTI 기준 70달러대의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국가로, 생산량과 수출량이 각각 1일 400만배럴, 240만배럴에 이른다. 전세계 원유의 일여생산능력이 1일 100만~150만배럴인 사실을 감안

할 때 이란 핵 문제 악화는 국제 원유 시장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란 문제와 함께 나이지리아 반군 무장 세력의 석유시설 테러 증가와,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둔 미국의 정세 시설 노후화 등도 주요 공급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유가 불안을 틈타 투기자금까지 원유 선물시장에 몰려들면서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구조적 원유 수급 문제가 거론됐다. /연환뉴스

직장인·구직자 “간디형 CEO가 좋아”

상당수의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배려와 인간관계를 통한 지원을 중요시하는 ‘간디형’의 리더십을 가진 CEO(최고경영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사이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3일 인사관련 월간지 ‘인재경영’과 공동으로 구직자와 직장인 62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CEO 리더십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8%가 ‘간디형’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분석적이고 강한 책임

감이 있으며 업무의 시스템화를 중시하는 ‘포드형’(28.8%), 도전과 경쟁을 즐기며 미래에 관심이 많고 성과를 중시하는 ‘빌게이츠형’(17.3%), 낙천적·사교적이며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발로 뛰는 활동가인 ‘처칠형’(11.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CEO가 가져야 할 소양으로 ▲신뢰 등 인간적 요소(27%)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23.7%) ▲자율성 보장과 권한 배분(22.5%) 등을 꼽았다. /연환뉴스

중소 우수기능인 신청접수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부터 30일까지 2006년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신청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3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인이다.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면 노동부장

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증서와 일시장려금 5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후 대학·전문대학 입학과정에서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서는 공단인터넷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062)970-1741~5.

토공, 조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토지공사사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조정대상’에서 공기업 최초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토공은 평가에서 선진공공기관 센터프로그램을 도입한 화성동탄신도시, 친환경 실개울과 호수공원을 조성한 용인동백지구, 세계 각국의 조정양식을 구현한 파주교하지구 및 한국의 전통정원을 도입한 개성공단 조정공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친환경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앞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테크시스템	웹 디자이너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04	062-373-3176
하남정밀	방진(EDM) 담당(사상업무종시가능자 우대)	고졸/경력1년	1,800~2,000	05/05	011-9614-5455
화인코리아	수질관리 환경기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1-330-4520
동부화학 광주지점	[보험경력자] 영업소장님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06	062-220-8500
서광주센터	가전영업, 설치, 경리,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0	062-372-9800
미트앤미트	배송 배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11-213-7612
휴로넷	[주5일]SK텔레콤(광주)114/CR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0	02-780-9595
휴플러스	설비보전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1	062-949-4121
성신스프레이	경리업무 담당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2	062-943-7725
KTES	웹디자이너/웹프로그래머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2	062-371-1480
현보하이텍	자재사무원 및 품질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3	063-536-1560
글로벌통신	PLC programmer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4	062-973-6114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